‘꿈’ 향한 힘찬 도전

▲디자인과 수업모습

광주전자고등학교

주방식 교장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어 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광주전자고등학교.

이 학교에서는 ▲꿈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 ▲심신이 건강하고 예절바른 학생 ▲꾸준히 연구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교사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매 수업시간 5분투자로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하는 ‘5분잡스토리 운영’으로 어느 직장,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있다.

광주전자고등학교는 ▲중소기업청 비즈쿨 선도학교 운영 ▲2016 청소년 경찰학교 로고·슬로건 공모전 경찰청장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6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메카트로닉스 직종 은메달, 옥내제어 직종 우수상 수상 ▲2016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인재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 부문)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올해에는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인력 양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희망자를 교육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론교육과 현장 훈련 실시)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운영(첨단 자동차 정비 및 제조분야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운영(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와의 협약을 통한 특성화고 고등학생들의 안정적인 진로 보장)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특수교육대상자의 전문 직업교육 강화 및 실습 중심의 훈련 기회 제공) 등을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3월 1일 개교 당시부터 중학교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특성화고등학교로 현재도 매우 우수한 성적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된 학생(중학교 내신 비율 57.47%), 매년 학교교육과정설명회 때 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학교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학부모, 특성화고에 적합한 성장경로 모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한데모여 광주의 명문 특성화고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금탑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은 지역 산업분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유입 경로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진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취업률, 전공동아리, 심화 1팀1기업 프로젝트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62개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16개교가 선정됐으며 그중 광주지역 특성화고중에서 유일하게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가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우수사업단으로 선정 됐다.

2015년도 졸업생 465명의 학생 중 76명(15.8%)의 학생이 대학진학, 339명(72.9%)의 학생이 취업했으며, 공공기관 한국전력 등 9명이며 취업자수의 317명(68.2%)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우수학교 선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 전공동아리 프로그램은 19개 전공동아리 총 283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현장견학, 현장체험, 현장실습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한 동아리 활동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전공동아리 학생의 기능이 요구되는 산업체를 발굴하여 업체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취업맞춤반은 6개 과정 총 850시간, 협약업체수 32개사, 4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경쟁력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학교, 학생이 취업약정을 체결하고, 현장 직무 분석을 통한 현장 적응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했다.

심화1팀 1기업 프로젝트는 전기과와 자동차과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는 태양광 발전 설비 현장중심과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광종합기술단과 연계해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동스쿠터를 조립,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직접 구축해 충전,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6년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우수학교 선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1천6백만원, 교육청 대응투자금 3천 8백 5십만원이 지원되었다.

취업맞춤반 3자 협약식(5월 25일)을 시작으로 취업맞춤반 5개과정 실무중심교육(3학년 47명 참여)을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중소기업 이해연수(2학년 30명), 지역의 강소기업과 함께하는 ‘진로체험의 날’(채용박람회), 1팀1기업 프로젝트(자율주행 로봇 제작), 성工취UP가자GO 등을 진행했다.

전공동아리는 30여개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자격증 취득반 24개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 489명이 712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등 성장경로에 따른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 취업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감 격려 방문

특히,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개막식(2016년 9월 21일)에서 본교가 ‘기술인재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성화고 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했다는 점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배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부에서는 청년취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위스와 독일의 직업교육제도의 장점들을 접목시켜 지난해부터 새롭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열정과 실력을 갖춘 똑똑하고 건강한 학생을 길러내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하여 2015년부터 학교에서 기초실습과 이론수업을 실시하고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로 이론식·주입식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는 시범사업부터 참여했으며, 2016년 자동화기계과 3학년 58명, 2학년 47명, 디자인과 2학년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실무능력과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능기술인력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우수중소기업인 ㈜화천기공, ㈜현성테크노, ㈜엠앤케이 등 40개 기업과 사전에 훈련 및 채용약정을 체결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며, 참여학생은 고교 2~3학년 간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배운 후 졸업과 동시에 참여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운영 중인 절삭가공,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교육과정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 해 산업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수업 외 2학년은 주중 2일, 3학년 1학기는 주중 3일, 3학년 2학기부터는 졸업 시까지 기업에서 상근하면서 실무역량을 기른다.

아울러,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는 타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달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에 2학년 순환형 OJT(현장실습)를 실시하여 참여학생이 3~4개의 기업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기업의 조직문화와 기술을 습득하고 기업선택의 폭을 넓혀 원하는 기업을 찾아 인력 미스매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OJT(현장실습)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법적보호와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열정과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의 OFF-JT(학교 교육)과 현장중심의 직무 능력을 보유한 현장교사의 OJT(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학생들에게는 신직업자격증 취득 제도에 따라 별도의 자격증 취득이 지원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유니테크 협약

이러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에게는 현장실무와 직결되는 실전지향 직무능력 습득으로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졸업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기술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수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청년실업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범 국가적 기술인력 양성의 사업모델을 창출할 것이며,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를 위해 ‘2016년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등을 통해 중학교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자동차과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전문대를 연계한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인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을 통해 자동차분야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유니테크 사업은 2015년 8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전국 16개 유니테크 사업단 중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광주전자공고 자동차과와 전남도립대 자동차과가 선정되었다.

이후 학부모설명회, 학생선발,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협약업체 발굴 및 예비학습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2학년 30명 학생과 ㈜한국지엠서광주서비스센터외 10개 협약 기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육훈련(OJT)을 실시하고 있다.

유니테크 사업은 고교·전문대·기업이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교 1년 6개월(조기졸업)의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유니테크 특별반에 선발된 학생들은 취업보장, 조기 졸업을 통하여 취업 및 진학에 대한 고민 없이 기술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짧은 기간에 중견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는 신개념 산학연계 통합교육시스템이다.

자동차과에서는 일찍이 2006년부터 전국 유일하게 자동차종합정비서비스를 학교기업 운영을 통하여 자동차 도장, 차체수리, 자동차정비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내 도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과 주변 산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유니테크 통합교육은 4년간의 장기 교육훈련으로 취업과 진학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중견기술자로 곧바로 사회로 진출할 수 있어 학생, 학부모, 기업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단계 발전된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니테크 통합교육의 인력양양성 목표는 첨단자동차정비 및 제조 분야의 ‘NCS 4 수준’의 전문기술인이며 인력유형으로는 첨단자동차정비사, 자동차차체정비사, 자동차보수도장사, 자동차제작 및 설계사를 배출하기 위해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협약업체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